

## [ 시티 &amp; 피처 ]

# 남구 압촌동에 '영어마을' 선다

기숙사·어린이공원 등 갖춰 12월 말께 본격 운영

공사비 37억원…현재 60% 공정

유치원·초·중생 10만명 수용

기숙사와 체험시설을 갖춘 광주 첫 '영어마을'이 오는 12월 말 남구 압촌동에 들어선다.

남구는 16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압촌동 6천600㎡ 부지에 교육관 5동·기숙사·어린이공원을 갖춘 연립평 3전 465㎡ 규모의 영어마을을 조성, 오는 12월 말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영어교육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피케이는 앞서 지난 9월 37억원을 들여 영어마을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아이피케이는 영어마을 운영도 직접 맡는다.

이번에 들어서는 영어마을은 1930년대 미국 버지니아주 모습을 재현해 기존의 현대화된 모습의 영어마을과

차별화하며, 교육시설 외에도 어린이 공원·캐릭터 박물관 등을 배치해 초·중등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교육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중등 학교 학생으로 한번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수용예정 인원은 10만명선이다.

평일에는 2박3일 과정의 교육이 진행되고, 주말과 방학에는 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된다. 1인당 수강료는 2박3일 기준, 8만원 이내로 한다는 계획이다.

영어마을이 본격 운영되면 남구청

은 홍보와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광주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의 평가와 학생 수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광주지역의 학생들이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외국 어린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영어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은 20여 개로 대부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리모델링' 형태이다. 광주처럼 대규모로 마을이 조성된 '신규조성형'은 경기도 파주의 영어 마을이 대표적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기초노령연금 신청 줄이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광주시내 동사무소마다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접수 이틀째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시 전체 신청대상자 3만6천여 명 중 4천930명이 접수를 마쳐 13.7%의 접수율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462명(대상자 3천842명) ▲서구 570명(7천137명) ▲남구 588명(6천648명) ▲북구 2천434명(1천489명) ▲광산구 876명(6천565명)이 각각 신청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70세 이상(1937년 이전 출생자) 노인 혼자의

경우 월소득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의 경우 월소득 64만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계좌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차 신청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노인 혼자인 경우 매월 2만~8만4천원, 부부는 4만~13만4천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금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또는 120번으로 하면 된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5·18 유공자 심사 1년 만에 재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결정을 위한 기초 심사 업무가 1년 만에 재개된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위원 10명에게 17일 위원장을 수여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유공자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여부 심사위원회의 전원 사퇴로 업무가 중단된 지 1년 만이다.

시는 그동안 법조계와 의료계, 학계, 5·18 관련 단체 등에 심사위원 추천을 꾸준히 요구해 최근 선임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5·18 유공자 관

련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여기에서 관련 여부를 인정 받아야 최종 심의 기구인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시는 지난해 유공자 심의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이 심사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심사위원 추천 인사 대부분이 참여를 끌어 심사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심사위가 구성됨에 따라 5차(2004년) 신청자 가운데 대상자 145명과 6차(2006년) 신청자 729명 등 모두 874명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시내버스 현금 인식함 도입

광주시, 전국 최초…수입금 전산 관리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전산 관리시스템을 갖췄다.

시는 16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현금인식요금화 도입을 최근 마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전산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은 전체 시내버스 수입금의 20%로,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투명성 확보가 과제였다.

시는 이에 따라 올 초 42대의 시내버스에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달 초 953대 전 차량에 현금인식요금화를 설치했다.

현금인식요금함은 승객들이 요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계수와 거스름돈을 지급하고 이 정보



를 교통카드시스템에 전송하여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내년 5월 광주서 열린다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내년 5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6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내년 5월 광주에서 3일 동안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청소년박람회는 '다이나믹 청소년·대한민국 에너지'를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광주가 학생독립운동의 밤상자이고, 5·18 민주화운동에도 청소년들이 앞장섰던 점을 감안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해바라기 '활짝'

16일 노란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었다. 해바라기 공원은 광주시와 한국기스공사가 10월

/위치랑기자 jrwi@kwangju.co.kr

## 동구 운림동 의재로 확장 공사

진입로 차단 인근 주민들 반발

### 市에 진정서 제출

광주시 진정서 제출

광주시 동구 운림동 '의재로 확장 공사'로 진입로가 사라지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의재로를 넓히면서 폐쇄되는 라인 2차·무등스위트빌리아 진입로를 보존해 달라"는 진정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기존 2차선(폭 10m) 도로 인도에 있던 수령 30~40년생 백나무 56주를 옮겨심지 않고, 새로운 4차선(폭 25m) 도로 중앙분리대 대용으로 납겨둘 계획이어서 아파트 단지 진입로가 막히게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위치도>

진입로가 폐쇄되면 라인2차 아파

들려오는 불편을 겪게 된다.

주민들은 따라서 가로수 3~4그루를 옮겨 심어 기존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도로폭이 4차선으로 늘어 좌회전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현재 광주지방경찰청과 신호등 설치를 놓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 연말 준공 목표로 지난 6월부터 124억원을 들여 운림동~학운초교 간 의재로 300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당뇨 환자 당뇨식 시식회'

남구청, 개인 맞는 음식 선택 실습

광주시 남구는 17일 오전 10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보건소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및 당뇨식 시식회'를 연다.

남구청과 광주시 만성질환 관리 사업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당뇨의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호남대 사회체육 학과 유용권 교수 등이 강사로 나

서 '당뇨질환'에 대한 강의를 한다.

강의 후에는 환자들의 혈압·혈당·체중 등을 측정해 개인에 맞는 음식메뉴 선택 실습 및 당뇨식 시식 행사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남구는 앞으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당뇨 환자들까지 대상을 확장, 민간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